

# 예정대로 오늘 개학...밀집도 높아진 학교 방역 철저해야

### 유·초 1~2·고 3은 매일 등교...광주·전남 학교 70~90% 정상 수업 방역 불안감 속 학생들 손 씻기·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 준수 절실

교육부의 '연기없는 개학' 방침에 따라 광주·전남을 비롯해 전국의 유치원생과 초·중·고교생이 새 학년 첫 등굣길에 나선다.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지만, 개학을 두 달여 연기하고 원격수업으로 학사일정을 시작했던 지난해와는 다른 상황이어서 의미가 남다르다.

1일 광주시교육청 등 교육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 고등학교 3학년은 매일 학교에 가고 나머지 학년은 격주·격일 등으로 등교한다.

교육부가 거리두기 2단계까지 유치원생과 초1~

2학년을 밀집도(전교생 중 등교 가능한 인원) 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발달 단계상 원격 수업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광주의 유·초·중·고 모든 학생들이 개학 연기없이 정상적으로 새학기를 시작하게 됐다. 학생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의 등교수업도 확대한다. 초·중·고 300명 이하 학교, 300명 초과 400명 이하이면서 학급당 평균 학생 수 25명 이하인 학교는 거리두기 2.5단계까지 등교인원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지난해 광주 초·중·고 67개교에서 올해는 31개교

늘어난 98개교가 등교 인원을 자율 조정할 수 있다. 소규모 학교가 많은 전남의 대부분 학교도 2일을 기해 일제히 등교수업을 진행한다. 800여개 학교 중 학생수가 전체 900명 이상인 초등학교 19곳과 일부 대규모 중·고등학교를 제외하고 90%이상의 학교에서 정상적인 수업이 이뤄진다.

전남도교육청은 앞서 지난 2월 말 새학년 집중 준비기간을 운영하고, 학사운영·학교 교육계획 수립·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 교원역량강화 연수 등 안전한 학사일정 준비에 만전을 기해왔다.

특히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개별맞춤형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 연수, 원격수업 기기대여 준비, 학교 안 전문적학습 공동체 구성 등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른 새학기 교육활동 대책도 마련했다.

하지만 연기없는 개학이 현실화된 현재까지도 일

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교육부의 등교 확대 방침에 불만과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육부의 등교 확대 방침에 따라 학교의 학생 밀집도가 크게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방역 당국의 대책은 실제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불만도 나온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아직 코로나19 상황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철저히 개인위생을 지키고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것이 최선의 방역이라고 말한다.

학교에서는 마스크를 쓰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손을 씻는 습관을 들여야 하며 친구들 사이에서도 직접적인 신체 접촉 행위는 가급적 삼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쉬는 시간마다 창문을 활짝 열고 환기를 충분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역 전문가들은 "종일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

하는 것이 답답할 수 있는 만큼 쉬는 시간이나 점심 시간에 바깥 공기를 쬐게 하는 것이 좋다"며 "학교에서는 가능한 개인 물품을 사용해야 하며 공유 물품은 수시로 청소·소독을 해주고,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실내 공간에 모여 음식을 먹는 것은 최대한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새학기 초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지자체 등 700여개 기관과 함께 전국 초등학교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 및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2일부터 19일까지 3주간 진행되는 이번 점검에서는 전국 초등학교 6400곳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중점 관리가 필요한 5개 분야 협업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백신 맞고나니 후련...불안감 사라졌어요”

### 백신 접종 시작...광주 접종현장 가보니

### 요양원 직원·요양보호사 대상 한 명 접종하는데 십여분 걸려 불안감 사라져 일하기 편해져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 26일 광주시 북구 오치동 '새롭실버요양원'에는 긴장감이 흘렀다.

광주시 북구 보건소 직원들은 접종시작 시간(오전 9시 40분)보다 30여분 일찍 도착, 방호복을 입고 준비한 뒤 오전 9시30분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이 들어있는 아이스박스 2개를 안고 요양원으로 들어섰다.

의료진들은 요양원 2층 식당에서 대기하던 직원과 요양보호사 등에게 발열체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접종 예진표'를 통한 문진을 실시한 뒤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한 명이 접종하는 데 대략 십여분 정도 걸렸다. 이날 54명이 접종을 마쳤다.

긴장했던 접종대상자들은 백신을 맞고나니 후련하다고 입을 모았다.

새롭요양원 첫 백신 접종자인 이은경(여·59)원장은 "부담감 때문에 긴장했는데, 독감주사보다

아프지 않았다"면서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접종을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소감을 밝혔다.

요양보호사인 고연주(여·53)씨는 "3월부터 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기 위해 접종을 했다"면서 "접종을 한 만큼 불안감이 사라져 일을 하기 편할 것 같다"고 말했다.

2번째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우순(여·61)씨는 "간호사인 딸이 괜찮다고 해서 불안감 없이 접종을 했다"면서 "나로 인해 코로나가 어르신들께 전파되지 몰라 항상 사생활을 자제해야 해 힘들었지만 백신을 맞는 것으로 이러한 불안감이 해소됐으면 한다"고 했다.

북구보건소는 요양병원·요양원 등 18곳의 종사자 및 65세 미만 입소자들 917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아스트라제네카(AZ) 접종을 진행했다. 접종자들은 "1년 넘게 불안했지만 맞고 나니 후련해졌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은숙 북구보건소장은 "접종 과정에서 근육통, 두통, 매스꺼움 등 증상을 호소한 대상자들이 있었지만 몇 시간 뒤 괜찮아졌다"면서 "휴일이 지난 2일부터 다시 요양원을 중심으로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에 따르면 백신 접종은 지난 28일까지 50곳 3274명에게 이뤄져 접종률 33.5%를 기록했다.

/글·사진·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코로나19 첫 백신접종이 시작된 지난 26일 광주시 북구 오치동 '새롭실버요양원'에서 북구보건소 직원들이 접종을 준비하고 있다.

### 시외버스-승합차 충돌 나주시 1명 사망·4명 부상

시외버스와 승합차가 충돌, 승합차 운전자가 숨지고 버스 승객 등 4명이 부상을 입었다.

1일 나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4시께 나주시 산포면 등정 삼거리에서 999번 시외버스와 스타렉스 승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합차 운전자 A(64)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또 승합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와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3명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2차로에서 주행하던 A씨의 승합차량이 1차로로 변경하려다 1차로를 주행중인 시외버스와 충돌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민석 기자 mskim@

### 동거녀 아들 야구방망이 폭행 30대 남성 집행유예 2년 선고

숙제를 제대로 하지 않다가 하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동거녀의 어린 아들을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30대 남성에 징역형(집행유예)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함께 살고 있는 피해자 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경 요소로 반영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에 필요한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함께 사는 피해아동(11)이 거짓말을 한다며 었드리게 해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3회 때려 땅이 들게 하는가 하면, 숙제를 가져오라는 말을 듣지 않자다 피해아동을 넘어뜨리고 가슴을 발로 차 누를 골절 등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지난 2019년에도 숙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빗자루로 피해자 엉덩이를 10여차례 때린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학대 정도가 중하지 않나 A씨가 반성하고 있으며 현재 피해자 등과 별다른 이상 없이 동거중으로 피해자 및 피해자 암마가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 전두환 손배소 항소심 1년 9개월만에 재개

### 광주고법서 5차 변론준비기일 열어

전두환(90) 전 대통령의 회고록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이 1년 9개월 만에 재개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민사2-2부부는 지난 26일 5·18 관련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유족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5차 변론준비기

일을 열었다.

이날 준비기일은 법관 인사이동으로 인해 재개됐으며 주심인 김승주 고법 판사의 심리로 진행됐다.

재판은 지난 2019년 5월, 관련 형사 재판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조사 등을 지켜본 뒤 진행하기로 하면서 중단된 지 21개월 만에 재개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 이유 등을 정리하고 향후 쟁점 및 입증 절차 등을 논의했다.

전씨 측은 5·18 당시 사건 및 의혹들에 대한 의심 근거들을 제시했을 뿐 5·18 단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원고 측은 국가 기관 조사가 진행 중인데 계엄령의 식민 암매장이 없었던 것처럼 단정된 것 등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사 소송은 5·18의 역사적 진실에 대한 전반적인 왜곡과 관련자 명예훼손이 있었는지를 쟁점

로 진행중이며 형사 소송은 조비오 신부에 대한 자 명예훼손 문제로 집중해 다루고 있다.

민사 소송 1심에서는 전씨가 회고록에 북한군 개입 등 허위 사실을 기재해 5·18을 왜곡하고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형사 재판에서도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다음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공 고 문	분할 합병 공고 및 주권제출공고	공 고	공 고	공 고	공 고	공 고
<p><b>여수시 평여동 560-3번지</b></p> <p>위 땅은 개인 사유지이므로 무단출입 및 그 어떤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2021년 1월부터 사용을 해야 하니 무단 식재되어있는 나무는 2021년 3월 31일까지 모두 옮기셔야 원상 복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2021년 3월 31일까지 원상 복구되지 않을 시 나무는 임의로 쳐분함과 동시에 손해배상은 물론 토지 임차료 부과 등 법에 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 피해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p> <p>2021년 3월 2일 TEL. 010-4904-2334</p>	<p>2021년 2월 26일 주식회사 케이엘솔라테이아 "갑" 이의 정한(과) 주주회사 다온일렉트릭(이하 "을" 이라 칭함)은 각 사의 상호출자에서 "갑"의 재산의 일부인 장기공사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은 "을"과 합병하고, "갑"의 분할된 부분의 자산과 권리, 의무의 전부(을)이 포함중하며, "갑"과 "을"은 모두 존속하여 "갑"의 분할된 자산의 채무(상법 제 530조 제3항에 의함)는 "을"이 연대부담하지 않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합병 결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 및 주주는 이 공고 게재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제회사에 이의를 제출(증권거래법)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회사의 주주는 해당 회사의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에 이 공고를 합니다.</p> <p>2021년 3월 2일 "갑" 주식회사 케이엘솔라테이아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보봉내길253번길 16 사내이사 장 순화 "을" 주식회사 다온일렉트릭 광주광역시 광안구 양바들로208번길 27(수완동) 대표이사 조성근</p>	<p>광주가정법원 2020-년3656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사건에 관하여 민법 제1056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p> <p>1. 피상속인 망 김택배(1931. 7. 19.생) 등락기준지: 나주시 노안면 노안삼도로 507-22 최후 주소: 나주시 노안면 노안삼도로 507-22 (오정리, 전산요양원) 사 망 일: 2017년 11월 18일</p> <p>1. 위 피상속인의 일반상속재권자와 유증받은 자는 그 채권 또는 수증은 2021년 5월 9일 까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기간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상속재산의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수 있습니다.</p> <p>1. 상속재산관리인 변호사 소병선 주 소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자치재로 48 308호 (미래타운) 신고처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자치재로 48 308호 (미래타운) 문의처 061-371-4800</p> <p>2021년 3월 2일 상속재산관리인 변호사 소 병 선</p>	<p>광주가정법원 2020-년3657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사건에 관하여 민법 제1056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p> <p>1. 피상속인 망 김용수(1959. 10. 13.생) 등락기준지: 나주시 노안면 노안삼도로 507-22 최후 주소: 나주시 노안면 노안삼도로 507-22 (오정리, 전산요양원) 사 망 일: 2011년 8월 30일</p> <p>1. 위 피상속인의 일반상속재권자와 유증받은 자는 그 채권 또는 수증은 2021년 5월 9일 까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기간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상속재산의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수 있습니다.</p> <p>1. 상속재산관리인 변호사 소병선 주 소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자치재로 48 308호 (미래타운) 신고처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자치재로 48 308호 (미래타운) 문의처 061-371-4800</p> <p>2021년 3월 2일 상속재산관리인 변호사 소 병 선</p>	<p>광주가정법원 2020-년3658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사건에 관하여 민법 제1056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p> <p>1. 피상속인 망 김용수(1955. 12. 21.생) 등락기준지: 나주시 노안면 노안삼도로 507-22 최후 주소: 나주시 노안면 노안삼도로 507-22 (오정리, 전산요양원) 사 망 일: 2015년 12월 9일</p> <p>1. 위 피상속인의 일반상속재권자와 유증받은 자는 그 채권 또는 수증은 2021년 5월 9일 까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기간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상속재산의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수 있습니다.</p> <p>1. 상속재산관리인 변호사 소병선 주 소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자치재로 48 308호 (미래타운) 신고처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자치재로 48 308호 (미래타운) 문의처 061-371-4800</p> <p>2021년 3월 2일 상속재산관리인 변호사 소 병 선</p>	<p>광주가정법원 2020-년3659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사건에 관하여 민법 제1056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p> <p>1. 피상속인 망 백복기(1940. 10. 12.생) 등락기준지: 나주시 노안면 노안삼도로 507-22 최후 주소: 나주시 노안면 노안삼도로 507-22 (송학리, 빛고을정신요양원) 사 망 일: 2020년 10월 6일</p> <p>1. 위 피상속인의 일반상속재권자와 유증받은 자는 그 채권 또는 수증은 2021년 5월 9일 까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기간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상속재산의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수 있습니다.</p> <p>1. 상속재산관리인 변호사 소병선 주 소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자치재로 48 308호 (미래타운) 신고처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자치재로 48 308호 (미래타운) 문의처 061-371-4800</p> <p>2021년 3월 2일 상속재산관리인 변호사 소 병 선</p>	

**발전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 공고**

전기사업법 제73조제4항제5호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2항전시사업에 대한 의견수렴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태양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공고합니다.

발진소명	1	2
신원인	노근면	유남소
용량(KW)	99.645	99.645
위치	나주시 문평면 하동로 200, 202	나주시 문평면 하동로 200, 202
면적	930㎡	1,147.7㎡

2. 의견제출기간: 2021. 02. 25 ~ 2021. 03. 09.  
3. 제출방법: 인적사항과 의견을 기재하여 우편 또는 E-mail 제출바랍니다.  
- 우 편: 광주광역시 북구 경양로119번길 10, 2층 (주)에코 정수정  
- E-mail: uh57898@naver.com  
**주식회사 에코**  
대표 정수정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의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 사항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아래 공고 기간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내에 신고가 없을 때는 무연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전남 장성군 관동면 호계리 산18번지  
2. 분묘기수: 25기  
3. 개장사유: 재산권자와 부부합할  
4. 안장장소: 충남 금산군 서부면 서대동길 100, 일봉사  
5. 공고기간: 최종 공고일로부터 3개월  
6. 휴무기간: 무연분묘 발굴 후 10일  
7. 신고 처: 장성군 장성읍 서문길 15-9 남양휴먼 아파트 201동 505호 최현석 010-3008-5837

8. 개정방법  
(9) 유언분묘: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처리  
(9)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의 개장  
9. 구비서류: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제적등본, 족보, 사실 확인 등  
10. 기타사항: 상기 기간내에 신청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분묘사유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1년 3월 2일  
공고인: 최 현 석

**공 고**

광주가정법원 2020-년3661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사건에 관하여 민법 제1056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피상속인 망 김승민(1953. 12. 2.생) 등락기준지: 나주시 노안면 노안삼도로 507-22 최후 주소: 나주시 노안면 노안삼도로 507-22 (오정리, 전산요양원)  
사 망 일: 2012년 7월 9일

1. 위 피상속인의 일반상속재권자와 유증받은 자는 그 채권 또는 수증은 2021년 5월 9일 까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기간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상속재산의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상속재산관리인 변호사 소병선 주 소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자치재로 48 308호 (미래타운)  
신고처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자치재로 48 308호 (미래타운)  
문의처 061-371-4800

2021년 3월 2일  
상속재산관리인 변호사 소 병 선

**공 고**

광주가정법원 2020-년3664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사건에 관하여 민법 제1056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피상속인 망 김수봉(1946. 6. 3.생) 등락기준지: 나주시 노안면 노안삼도로 507-22 최후 주소: 나주시 노안면 노안삼도로 507-22 (오정리, 전산요양원)  
사 망 일: 2018년 6월 2일

1. 위 피상속인의 일반상속재권자와 유증받은 자는 그 채권 또는 수증은 2021년 5월 9일 까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기간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상속재산의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상속재산관리인 변호사 소병선 주 소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자치재로 48 308호 (미래타운)  
신고처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자치재로 48 308호 (미래타운)  
문의처 061-371-4800

2021년 3월 2일  
상속재산관리인 변호사 소 병 선

**공 고**

광주가정법원 2020-년3666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사건에 관하여 민법 제1056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피상속인 망 이말순(1943. 1. 1.생) 등락기준지: 나주시 노안면 노안삼도로 507-22 최후 주소: 나주시 노안면 노안삼도로 507-22 (오정리, 전산요양원)  
사 망 일: 2014년 5월 23일

1. 위 피상속인의 일반상속재권자와 유증받은 자는 그 채권 또는 수증은 2021년 5월 9일 까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기간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상속재산의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상속재산관리인 변호사 소병선 주 소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자치재로 48 308호 (미래타운)  
신고처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자치재로 48 308호 (미래타운)  
문의처 061-371-4800

2021년 3월 2일  
상속재산관리인 변호사 소 병 선

**공 고**

광주가정법원 2020-년 3669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사건에 관하여 민법 제1056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피상속인 망 최숙(1963. 6. 2.생) 등락기준지: 나주시 노안면 노안삼도로 507-22 최후 주소: 나주시 노안면 노안삼도로 507-22 (오정리, 전산요양원)  
사 망 일: 2017년 9월 24일

1. 위 피상속인의 일반상속재권자와 유증받은 자는 그 채권 또는 수증은 2021년 5월 9일 까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기간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상속재산의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상속재산관리인 변호사 소병선 주 소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자치재로 48 308호 (미래타운)  
신고처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자치재로 48 308호 (미래타운)  
문의처 061-371-4800

2021년 3월 2일  
상속재산관리인 변호사 소 병 선

**산행안내**

**3월7일(일)**  
▲광주씨산악회 3월7일(일) 포항&해파랑길 18구간·아가리달·해오름전망대&곤륜산 176.9m,오봉산178m 산행, 염주체육관 06:30, 동아병원영 06:35, 스테백화점 06:40, 광주역 06:45, 문예후문 06:55, 비엔 주차장 07:00 ※ 다음카페 광주 ki산악회 ☎ 010 7794 6920